

주5일 근무 실시로 인한 서울시 통행 변화와 대응방안

-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실시에 따른 시민생활 변화 예상
- 서울시의 대응방안
- 주5일 근무로 인한 서울시 통행 변화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실시에 따른 시민생활 변화 예상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올해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실시됨.

-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주5일 근무제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한지 약 3년여 만인 2003년 9월에 근로기준법 제49조 제1항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되었음.
-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공기업, 금융, 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가 실시될 예정임.

주5일 근무로 인한 본격적인 시민생활과 통행 변화 예상

- 은행과 보험업계, 그리고 삼성을 비롯한 일부 대기업의 주5일 근무 실시와 격주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자로 인해 이미 주5일 근무로 인한 시민생활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올해 7월부터는 그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주말 고속도로 혼잡현상의 심화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주5일 근무로 인한 통행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주5일 근무로 인한 서울시 통행 변화

주5일 근무 실시로 주말 여가 및 쇼핑통행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됨.

- 주5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와 주6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토요일 통행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주5일 근무의 실시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활동은 여가 및 쇼핑활동일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주5일 근로자와 주6일 근로자의 토요일 활동 비교

통행목적		주5일 근로자		주6일 근로자	
통행안함		683	16.2%	15	1.8%
출근		0	0.0%	296	36.5%
업무		0	0.0%	93	11.5%
쇼핑	백화점쇼핑	324	7.7%	24	3.0%
	대형쇼핑센터	285	6.7%	18	2.2%
	쇼핑단지	90	2.1%	8	1.0%
	재래시장	217	5.1%	35	4.3%
	소계	916	21.7%	85	10.5%
학원		66	1.6%	10	1.2%
여가	영화공연	486	11.5%	51	6.3%
	스포츠센터	115	2.7%	12	1.5%
	기타시설운동	137	3.2%	26	3.2%
	운동기타	73	1.7%	12	1.5%
	등산	101	2.4%	12	1.5%
	친구교제	658	15.6%	97	11.9%
	동호회	94	2.2%	15	1.8%
	친지방문	192	4.5%	20	2.5%
	위락시설	90	2.1%	5	0.6%
	수도권내지역여행	82	1.9%	7	0.9%
	수도권외부여행	90	2.1%	8	1.0%
	기타	63	1.5%	10	1.2%
	외식	381	9.0%	38	4.7%
	소계	2,562	60.6%	313	38.5%
계		4,227	100.0%	812	100.0%

- 위와 같은 현상은 주5일 근무실시로 변화되는 통행량을 구체적으로 예측한 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토요일에 발생하는 출근 및 업무통행은 주5일 근무가 실시되면 약 60%정도는 **여가통행(단기적으로 115만 통행, 장기적으로 317만 통행)**으로, 약 20%정도는 **쇼핑통행(단기적으로 40만 통행, 장기적으로 93만 통행)**으로, 그리고 약 15%는 통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었음(<표 2> 참조).
- 현재 토요일에 발생하는 출근 및 업무통행량의 약 15% 정도가 통행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주5일 근무가 실시되면 주말의 총 통행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여가 및 쇼핑 통행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여가 및 쇼핑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혼잡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표 2> 주말 출근·업무통행의 시나리오별 전환된 활동 및 비율

	주5일 근무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량		주5일 근무 실시 후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활동 및 통행량		
			활동구분	전환 비율 (%)	전환 통행량
단기적 변화 (1000인 이상 사업장, 금융·보험 공공부분 시행)	출근통행량	1,328,392	통행안함	13.6	250,480
	업무통행량	513,369	쇼핑	21.5	395,979
			학원	2.5	46,044
	합계	1,841,761	여가	62.4	1,149,259
장기적 변화 (20인 이상 사업장 시행)	출근통행량	3,516,626	통행안함	14.8	722,807
	업무통행량	1,367,205	쇼핑	19.1	932,812
			학원	1.1	53,722
	합계	4,883,831	여가	65.0	3,174,490

주5일 근무 실시는 평일 통행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주5일 근무의 실시는 주말 통행뿐 아니라 평일 통행에도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즉, 주5일 근무의 실시는 근로시간의 감소를 가져오고, 그를 보충하기 위한 고용이 창출되어 평일 출근 및 업무 통행량은 증가할 것임. 그러나 평일에 활동했던 여가나 쇼핑통행이 토요일로 전환되어 여가 및 쇼핑통행량은 감소할 것임. 이렇게 통행목적별로 변화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증가하는 출근 및 업무통행량이 감소되는 여가 및 쇼핑 통행량보다 적어 평일의 총 통행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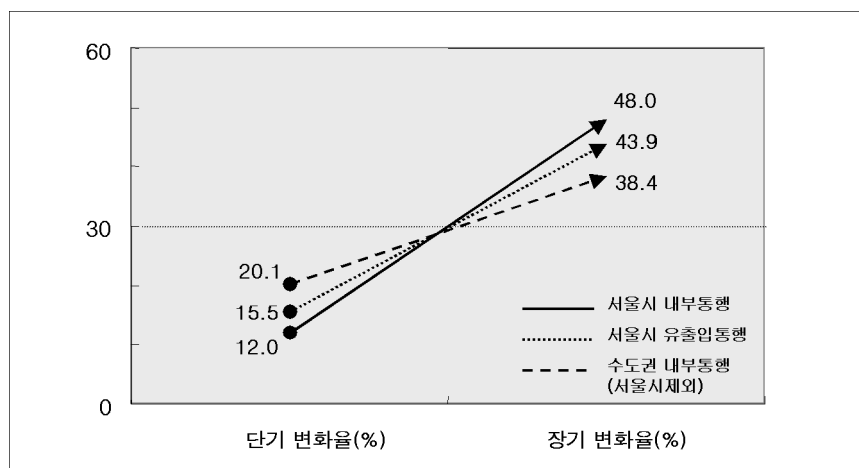
〈표 3〉 주5일 근무 시행에 따른 평일 통행량 변화예측 결과

(단위 : 통행/일)

	출근 및 업무 통행	여가 및 쇼핑 통행	합계
2002년 현재	12,846,395	8,601,984	21,448,379
단기적 변화 (1000인 이상 사업장, 금융·보험 공공부분 시행)	12,974,980	8,394,684	21,369,664
변화량	128,585 (1.0%)	-207,300 (-2.4%)	-78,715 (-0.4%)
장기적 변화 (20인 이상 사업장 시행)	13,187,537	8,055,367	21,242,904
변화량	341,142 (2.7%)	-546,617 (-6.4%)	-205,475 (-1.0%)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초기의 변화형태와는 다른 형태가 나타날 것임.

- 주5일 근무의 실시기간이 길어지면서 통행의 변화형태에도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즉, 주5일 근무 시행초기에는 서울시계를 벗어나는 장거리 여가통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5일제가 정착되어 가면서 예산제약,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서울시내 단거리 여가통행의 증가폭이 장거리 여가통행의 증가폭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주5일 근무 시행에 따른 수도권 여가통행의 변화율

서울시의 대응방안

생산적인 방향으로 시민생활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1946년 주40시간 근로제도를 도입하면서 프랑스는 열차요금 인하, 공공체육·여가 시설 확대, 시민페스티벌 운동 제창, 관광가격 인하 및 프로그램 공급, 유스호스텔 운동 창설 등의 적극적인 문화지원정책을 실시하였음.
- 이러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주40시간 근로제도가 실시된 후 프랑스에는 문화 대중화 정책 실시, 문화 운동 및 문화활동의 시작, 시청각 문화 운동 및 방송 매체(라디오, 영화)운동 지원 활발, 시민단체 활약 및 정부지원, 대중여가문화 규모 성장 등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음.
- 위와 같은 프랑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5일 근무 실시라는 시대의 변화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시에서도 주5일 근무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생활권 주변의 단거리 여가통행에 대한 지원

-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단거리 여가통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주말 이용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서울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여가시설로 공원 및 유원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한강시민공원은 서울시민이 많이 찾는 여가시설임. 이러한 여가시설에 대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주말에 이러한 시설을 찾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켜야 함.
- 공원 및 유원지 이외에 주5일 근무 실시로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명동, 대학로 등 각 자치구에 분포되어 있는 특성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차 없는 거리” 사업을 주말에 확대실시하고,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보행우선지구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제도를 주말에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특성화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함.

주요 쇼핑센터 주변 혼잡 관리

- 주말에 더욱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 주요 쇼핑센터에 대해서는 승용차 통행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주말 “교통혼잡특별관리 구역”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쇼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택배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주말 장거리 여가통행을 대중교통으로 유도

- 장거리 여가통행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대응방안보다는 전국적인 차원의 대응방안이 더욱 필요할 것임. 또한, 장거리 여가통행이 승용차를 선호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여가통행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 것은 매우 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제한적이거나 장거리 여가통행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서울시 주요 결절점에서 이와 연결되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하여 주말 노선변경, 증차, 연장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
 - 터미널 및 공항의 장기주차장 제도 활성화, 주차요금 할인 정책
 - 주말 버스전용차로 실시 등과 같은 광역시설의 효율적 이용 강구

이신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117
newsun@sdi.re.kr